



총회장 새해 인사

[신축년] 2021 년 새해 인사드립니다.



총회장 김 선 미

2021 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힘들고 지쳐버린 지난 2020 년 한 해를 이겨내고 2021 년을 맞았습니다. 저희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는 물론이고, 소속 회원학교도 바로 여러분 덕택에 무사히

2020 년을 보내고 희망과 도약의 해 2021 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의 무한한 열정과 높은 사명감에 머리 숙여 감사하고 가슴으로 존경합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가 우리 선생님들 바로 뒤에 있습니다.

힘내시고 나아가세요! 평안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멋진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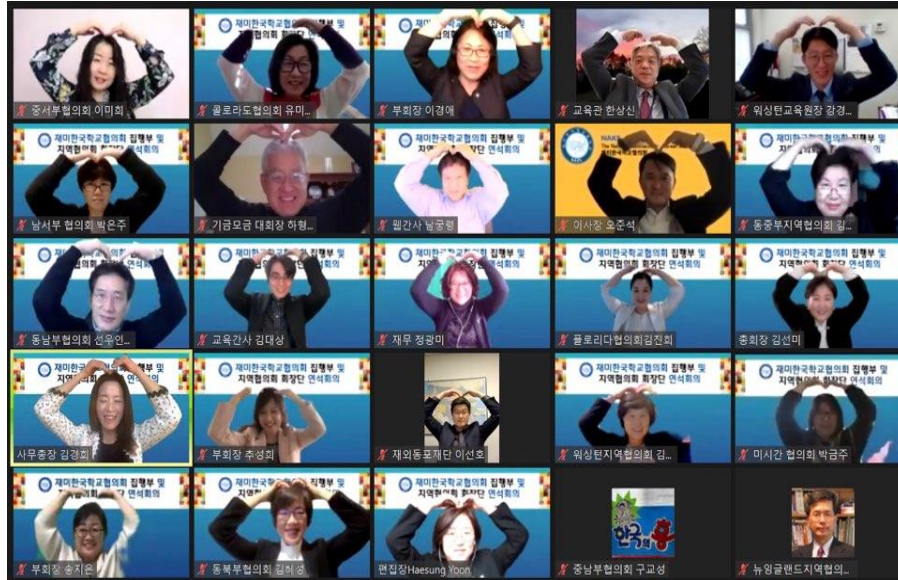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 새로운 소망을 품으며 김선미 드림

1 월의 낙스(NAKS) 소식

1. 창립 40 주년 기념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위한 <연석회의> 개최

한상신 주미대사관, 20 대 집행부와 지역협의회 회장단 등 참여



1 월 8 일 개최식에는 낙스 집행부와 지역협의회 회장단을 비롯해 한상신 주미대사관 교육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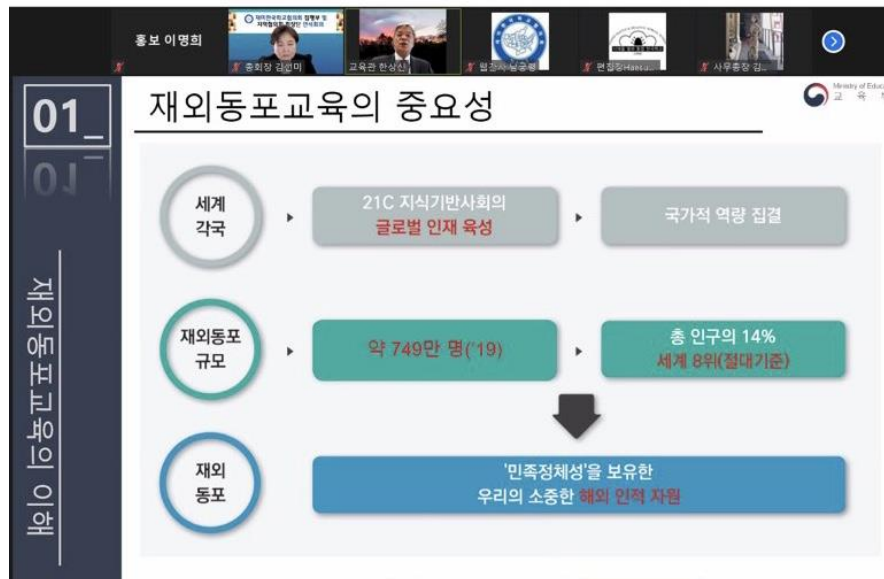
이선호 재외동포재단 주재관, 강경탁 워싱턴 교육원장,

하형록 NAKS 창립 40 주년 학술대회 기금 모금 대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낙스 임원진(총회장 김선미)과 14 개 지역협의회 회장단은 지난 1 월 8 일~9 일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Webinar)으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준석 이사장, 임병애 동중부지역 선출 이사, 한상신 주미대사관 교육관, 이선호 재외동포재단 주재관, 강경탁 워싱턴 교육원장, 하형록 NAKS 창립 40 주년 학술대회 기금 모금 대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연석회의는 올해의 남은 낙스 사업 방향을 확인하고 의논하며, 오는 7 월 15 일~17 일 온라인 비대면 진행과 부분적 대면으로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되는 ‘창립 40 주년 기념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준비하기 위한 모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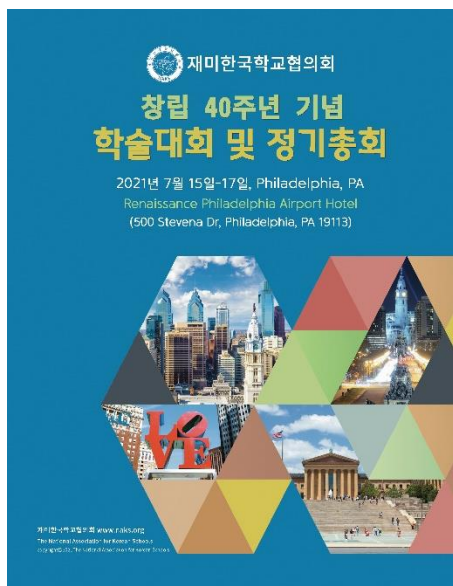
올해 학술대회는 창립 40 주년 기념의 학술대회로 “4 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한국어 교육”이라는 주제 아래 40 년 역사를 가진 낙스의 오늘날의 역할과 발전을 위해 미국 내는 물론 한국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관련 기관과도 연계하여 이뤄지는 큰 행사이다. 특별히, 한국학교 교사들이 새로운 시대에 앞서가는 한국어 및 한국문화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교육 전문가로 거듭나는 학술대회가 되도록 계획하고 있다. 또한 분야별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사들이

학술대회에서 배우고 익힌 내용을 통해 좀 더 발전된 정체성 교육으로 이끌어내며, 교육 현장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활용하고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상신 주미대사관 교육관이 ‘재외동포교육의 이해’ 강연을 하는 모습

둘째 날 9 일에는 이사회 및 20 대 집행부의 사업 보고 및 14 개 지역협의회 사업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집행부 각 임원진의 사업 활동과 진행 과정 등을 소개하고, 14 개 지역협의회 특색있는 교육 행사 계획을 통해 유익한 교육 정보를 교환하며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다. 또한, 이번 학술대회가 온라인 행사로 진행될 경우를 대비해 지역협의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는 중요한 소통의 시간이었다.



‘창립 40 주년 기념 학술대회’ 포스터

이번 학술대회가 코비드 19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한국학교의 발전과 새로운 한국어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한국교육 역사에 길이 남을 행사가 되길 기대해 본다. 낙스 창립 40 주년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는 2021 년 7 월 15 일~17 일에 필라델피아에서 대면과 비대면(온라인) 행사로 개최될 예정이다.

**" 교육 사업과 진행 과정 소개
지역협의회 특색있는 교육 정보 교환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기회의 장 "**

2. 제 1 회 "친구야! 대한민국을 소개할게" 행사 개최

한국 역사와 문화에 관한 우리 한인 2 세들의

남다른 관심과 열의를 보여줘...

지난 1 월 23 일 박스에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잘못 알려진 한국 문화와 역사를 한국학교에서의 배움을 발판으로 친구들에게 올바르게 소개하는 "친구야! 대한민국을 소개할게" 프로그램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줌 웨비나(Zoom Webinar)와 유튜브(You Tube)를 이용한 실시간 온라인 토론방송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대한민국 바로 알리기' 기자단으로 활동했던 학생들(6 학년~12 학년)이 스스로 연구하고 찾아낸 소중한 한국의 문화와 역사 자료를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공유하여 함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각 지역협의회를 대표하는 총 5 명의 발표자 미시간 이연우(아름다운 섬 독도), 워싱턴 오연우(한국 전쟁), 동중부 김민진(한국 전통 무용), 서북미 장민아(육일기의 잘못된 사용), 동중부 박유진(군함도 - 하시마섬의 진실) 등은 각자가 준비한 주제를 열의와 진지함을 가득 담아 소신 있고 당당하게 발표하여 시간 내내 보는 이들이 눈을 땔 수 없게 하였다. 순서에 따라 한 사람씩 진행된 발표에 이어 질의와 응답 시간에는 각 주제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이 오가며 모든 참여자가 여러 의견을 나누는 풍성한 배움의 시간이 되었다.

실시간 생방송 진행으로 인해 발표자들에게는 방송 채팅창을 통해 예상치 못한 다양한 질문이 주어졌다. 그런데도 모든 발표자가 자신의 견해와 아는 바를 소신 있게 드러내는 모습에 행사에 참여한 교사들과 학생들은 발표자들을 응원하며 더욱더 귀를 기울였다. 또한 오랜 시간 그들의 꾸준한 노력과 깊이 있는 연구 결과를 통해 다양한 관점으로 여러 견해를 균형 있게 수용하는 모습이 보는 이들로 하여금 놀랍다는 감탄을 자아냈다.



김선미 총회장(맨 아래줄 오른쪽), 진행 임원진 김대상 교육간사, 이경애 부회장(맨 위줄 오른쪽부터)과
5 명 발표자의 모습

한국학교에서 교사를 통해 전달되는 역사 문화 교육은 한국학교의 교육목적인 코리안 어메리칸(Korean-American)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게 도와주는 것으로서, 이번 행사가 패널로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스스로 한국 역사에 대한 탐구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질만한 연구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였다. 동시에 **혼자만의 연구가 아닌 여러 친구와의 의견교환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역사 문화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학생들의 관심 있는 문제 제기와 적극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역사연구에 대한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자발적으로 탐구하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그동안의 한국학교 교육 활동에서 쉽게 보지 못했던 교육적 효과라 여겨진다. 나스는 앞으로의 행사에서 올해 처음 열린 이번 대회 경험의 바탕으로 좀 더 세부적인 진행 상황을 보완하고 발전 시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준비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이번 행사는 한국학교 학생과 교사가 함께하는 교육 활동이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분야별로 훌륭한 인재들을 발굴해내고, 이 사회에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내고 알리는 계기**로서도 **충분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앞으로 더 많은 학생이 이러한 한국학교 활동을 통해 올바른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다음 세대의 세계를 아우르는 다양한 연구성과들이 대내외적으로 활발하게 알려지기를 기대해 본다.

3. 제 1 회 NAKS Korean Test 실시

SAT II Subject test 가 중단되었던 소식에 그동안 SAT II 한국어 모의고사 준비를 위해 여러 면에서 준비해왔던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이하 나스)는 아쉬움이 가득하다. 이는 단순히 시험을 치른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점에서 더욱더 아쉽다. 하지만 이번 3 월 19 일~21 일 사이에 예정되었던 모의고사를 나스는 더 이상 SAT 한국어 모의고사라는 이름을 쓸 수 없지만 **'NAKS Korean Test'**라는 명칭으로 **5 학년~12 학년 대상의 한국학교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진행하려고 한다.**

한국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한국어 실력을 전국의 학생을 대상으로 평가해본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하기에 진행하려고 한다. 또 이미 준비되어오던 시험이라 그대로 진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SAT 를 통한 대입 평가에서 외국어 시험과목이 지금 없어진다고 해도 그 평가를 대신할 대안적 시험이 개발되리라 보기에 그에 대비한 기초 작업으로서 데이터 마련이 필수이고 대안적 시험 개발에 대한 준비 작업은 가장 많은 한인 후세들이 참여하는 한국학교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는 앞으로 변화된 형태로 나올 대입 외국어 능력 평가 시험을 대비하며 또 대안적 시험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AP Korean 신설을 위해서도 전제되는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의 수요가 많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줄 자료**가 될 수 있기에 이번 시험은 명칭을 바꿔서라도 치러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제 한국어 공부의 중요한 점을 부각하기에는 한국학교의 수업이 각 주의 공립학교에서의 한국어 학점인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한 일로 보이며, 이에 닉스의 교육과정이 각 주의 중, 고등 공립학교 외국어 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일인 것 같다. 이를 위해서 닉스에서 이미 추진 중인 교육과정 개정안 마련 작업이 매우 시의적절(時宜適切)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 닉스 교육과정의 내용과 구성을 ACTFL 과 각 주에서 요구하는 커리큘럼을 충족시키려는 노력으로 이미 준비하고 있었기에 가까운 날에 각 주에서 **외국어 크레딧으로 한국학교의 수업이 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해 줄 수 있으리라 본다.

닉스는 이번 상황을 장기적 관점에서 보려고 하며, 한국어의 중요성을 심을 수 있는 차기 대안적 시험에서 'Korean'이 다시 외국어 과목으로 선택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 한국학교 수업이 공립학교에서의
외국어 학점으로서의 인정이 무엇보다 시급..."**

이달의 명언

개신창래(開新創來)



워싱턴협의회 회장 김 선 화

2021 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2020 년 코로나 19 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기업체, 관공서에서 새해 기대와 희망을 담은 사자성어들을 내놓으며 새해를 시작하였다. 성인남녀 총 1,186 명을 대상으로 '2021 년, 본인이 바라는 새해 소망과 가까운 사자성어'를 조사한 결과 1 위는 '고진감래', 2 위는 '무사무려', 3 위는 '전화위복'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많은 사자성어 중 한국국학진흥원이 공모 절차를 통해 정한 2021 년의 사자성어 '개신창래(開新創來)'가 마음에 와닿는다. '개신창래(開新創來)'는 '새로운 길을 열어 미래를 창조하자'라는 의미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직면한 현실을 '멈춤'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급격한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 로드맵을 구축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 년 초에 우리는 계속 과거의 상태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다 7 월쯤 장기화 조짐이 있자 이

현실을 돌파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빠르게 움직여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역사의 흐름은 계속 변화하며 새로운 현실이 눈앞에 닥치며 흘러간다. 시대의 변화는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 변화하는 시대에 몸을 싣고, 같이 파도를 타며 노를 저어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진감래” “무사무려” “전화위복” 개신창래” 는 모두 시대가 저절로 나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빠르게 적응하며 미래를 바라보고 창조하려는 노력이 있었을 때 시대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 될 수 있다. 우리 모두 시대의 선물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 변화하는 시대에 몸을 싣고, 같이 파도를 타며 노를 저어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고 창조하려는 노력..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

알림사항

1. 수준별 역사 문화 교육 자료 '설날'

우리 고유의 큰 명절인 설날이 올해는 2월 12일(한국 시각 기준)입니다. 아래 링크된 주소로 들어가시면, 온라인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설날에 관한 다양한 수업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새롭게 '설날' PPT에 영어자막(2월 중 기재 예정)으로 상세한 교육자료를 추가하였습니다. 앞으로 한국문화 수업에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설날' 수업자료 바로 가기

---> <https://www.naks.org/jml/library-history-culture-material-by-level/1977-2018-09-20-16-55-12>

2.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을 통한 낙스 홍보

차세대 젊은 층이 낙스의 교육사업과 한국학교의 활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에 낙스 계정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인스타그램을 통해 우리 선생님들께 더욱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다양한 교육 활동들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낙스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여러 선생님과 더 많이 공감하고,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전통을 널리 알리는 중심기관이 될 것입니다.



***낙스 인스타그램 아이디 : naks.usa**

